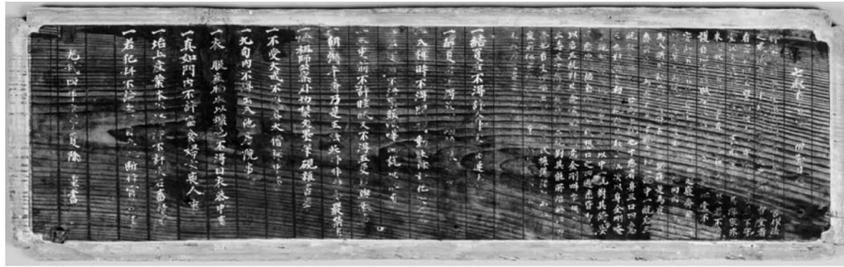


# 현판·시판으로 본 송보사찰 송광사의 역사

성보박물관 6일부터 '필적기행' 특별전  
안거기간·예절 등 기록 '칠전간당론' 주목  
해제와 번역 담긴 책도 발간  
보조암 출토 청동그릇·조선 동전도 첫 공개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자세히 기록한 칠전간당론(七殿看堂論)과 절목(節目) 기판. <송광사 성보박물관 제공>

침계의 냇물소리  
구름 짙은 차림새로 높은 다락 올랐더니  
종일토록 시냇물이 돌을 치며 울리구나!  
내 마음이 스스로 세속의 나그네가 아니거니  
인간 세상 무슨 일이 근심 걱정 되리오  
(염재(念齋) 송태희의 '송광사 내팔경' 중에서)

순천 송광사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많은데, 그 가운데 사찰 안과 밖의 승경을 시로 남긴 시판도 있다. 위 현판은 20세기 초 강원 한문교사로 활동했던 염재 송태희의 시다. 침계루의 냇물소리를 들으며 "인간 세상 무슨 일이 근심 걱정 되리오"라고 읊조린 시인의 심사가 느껴진다.

훌륭한 스님을 많이 배출해 송보사찰로 일컫는 송광사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많다. 현판, 시판, 주련, 금석문, 불화 등은 송보사찰 송광사의 역사뿐 아니라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이 현판과 시판 등을 선보이는 '송광사의 필적 기행' 특별전을 개최한다.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미공개 됐던 현판을 비롯해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시판 등을 만날 수 있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현판과 시판의 글에 대한 해제와 번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물을 토대로 '송광사의 필적기행'도 함께 발간했다.

전시되는 주요 유물로는 조선 후기 문관으로 대제학, 좌의정 등을 역임한 연천(淵泉) 홍석주가 1828년 지은 '연천유산록(淵泉翁遊山錄)' 기판, 1938년 염재(念齋) 송태희가 지은 '송광사 내의 팔경' 시판, 1750년 완화 처해스님이 쓴 '침계루에서 짓다'(근차판상원운·謹次板上元韻) 등이다.

또한 1903년 연안(延安) 이순익이 쓴 '성수전상량문(聖壽殿上樑文)' 등 현판류와 송광사 16국사 진영 중 제 1세 보조국사(보물 제1043호), 송광사 응진전 16나한도(보물 제1367호), 천지명왕수륙잡문 목판(보물 제1914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보물 제1909호)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문화재는 조선 광무 4년(1900)에 다시 쓴 '칠전간당론(七殿看堂論)과 13가지 절목(節目)' 기판이다. 이 '칠전간당론' 기판은 지켜야 할 수도 규칙인 청규(淸規)가 적혀 있다. 선원의 안거기간과 해제,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덕목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송광사의 선풍을 짐작할 수 있다.

가로 110cm, 세로 33cm 현판에는 수행공간인 상대(上始) 칠전(七殿)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선가 일용공부하는 중에 간당을 출입하는 이는 여섯 때가운데서 묵안하고 여법히 작법하며, 또한 심통으로써 심악을 물리치는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중략) 참선 또한 이와 같아서 만일 자기 마음자리를 지켜서 보호하지 못한다면 또한 도적이 육문 안으로 함부로 들어와 마음자리를 요동시켜서 안정지 못하게 하니 불가불 잘 지켜야 한다"

이밖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보조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 암각새, 청동 그릇, 조선시대 동전 등 유물도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형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전시와 함께 발간된 '송광사의 필적기행'은 인문학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담아 경내는 물론 산내 암자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종합 해설서"라고 평했다.

한편 순천 송광사는 조계종 3대 사찰, 8대 총림에 속하는 큰 절로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佛叢)와 더불어 한국 삼보사찰(三寶寺刹)에 꼽힌다.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곳을 불보사찰, 고려대장경을 보관한 곳을 법보사찰, 고승을 많이 배출한 곳을 송보사찰이라 하는데 송광사는 훌륭한 스님을 배출한 절로 알려져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연의 문화카페

지난 2003년 여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접한 '문화적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공연 시작 전 극장 입구에 자리한 스낵코너는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즐기려는 관객들로 북적였다. '라이언 킹'의 1부 공연이 끝난 인터미션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장 차림으로 짝꿍이 일부 관객들은 삼삼오오 와인잔을 들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뮤지컬 공연에 대한 감상평에서부터 사소한 안부 묻고 받는 풍경은 또 하나의 '예술'이었다. 문화를 즐기는 이들의 행복한 일상은 이방인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다.

지난해 12월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 수제 맥주가 깜짝 등장했다. 송년기

원은 2016년 부터 '12개월 이상 영유아'들을 겨냥한 '토요국악동화'로 화제를 모았다. 미래관객개발을 목표로 동화에 국악을 접목시킨 다양한 레퍼토리를 매회 전석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극장들이 공연장을 '개방'한 이유는 관객들의 노력과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순수예술만 고집하는 지나친 엄숙주의로는 젊은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들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외국의 극장이 공연이 없을 땐 파티장이 되는 등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국내 공연장들의 변신을 이끈 계기가 됐다.

최근 광주시 공연예술의 대표 공간

## '광주문예회관 혁신'이 통하려면

희곡공연 '인디카 개론'에서 객석의 맥주 반입을 허용한 것이다. 1978년 개관 이후 40여 년만의 처음있는 일로, 국내 공공극장으로는 최초의 시도였다.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진 건 물론이다. 고무된 세종문화회관은 오는 7월 무용기획공연 '컨템포러리'에서 맥주, 8월과 11월 '해리 포터 필름 콘서트' 시리즈에서는 팝콘과 콜라를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장의 기피 대상이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끌어안기 위해 부모들과 함께 즐기는 '다섯, 하나'를 오는 4월 무대에 올린다.

지난달 서울 예술의전당 '1101 어린이라운지'를 오픈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 살부터 즐기는 예술이 101 살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7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예술을 느끼도록 한 체험 공간이다. 36개월 미만도 입장이 가능하고 예술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기존 돌봄시설과의 차별점이다. 이에 앞서 국립극장

인 광주문예회관이 '변화와 혁신'을 키워드로 '2020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개관 30주년에 맞춰 '찾아오는 문예회관, 다가가는 시립예술단'을 위해 문예회관의 리모델링과 브랜드 공연 제작에 올인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혁신안이 있다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동안 광주문예회관의 개혁안이 수차례 제시됐지만 매년 흐지부지됐던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광주문예회관의 전문성과 시립예술단의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용수머리로 끝날 수 있다.

21세기 공공극장은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문화발전소로 진화중이다. 광주문예회관의 '혁신'이 통하려면 품격 있는 콘텐츠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필수다. 문턱을 낮춘 공연장, 광주문예회관이 가야 할 미래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기발한 상상력과 동심으로 그린 '대왕 별 김밥'

군산 출신 양윤덕 시인 두 번째 동시집 펴내

군산 출신 양윤덕 시인이 두 번째 동시집 '대왕 별 김밥' (푸른사상)을 펴냈다.

2012년 '시와 소금'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 동심으로 그린 50여 편을 선보인다. "행여 티끌이 내려앉지 않았다 마음을 살펴 어린이 대하듯 표현"한 작품에서는 화자의 맑은 내면이 느껴진다.

"어둠 깔린 하늘은// 커다란// 김 한 장// // 찹조름 바닷바람으로 간을 맞추고// 고슬고슬 별밥에// // 흰 구름 마요네즈 짜-약/연노랑 꽃잎 달, 알록달록 불빛 맛살.....// // 준비된 모든 재료 푹푹 넣고// 속 푹푹 돌돌 말아 내면// // 눈 맛, 향 맛 최고!// 배 든든한 대왕 별 김밥// 한줄// // 멀리서 오는 새벽을 위해// 밤이 만들어 낸// 한끼 식사"

표제시 '대왕 별 김밥'은 밤하늘을 김으로, 허공에 떠있는 별을 밥으로, 환구름을 마요네즈로 상징해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 시다. 어린이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맑고도 경쾌한 작품이다.



이밖에 작품집에는 '사랑 먹는 어둠', '나무 그림자', '소리 대장', '밥 한 알' 등 즐거운 시심이 느껴지는 시들이 수록돼 있다. 각각의 시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순진무구한 그림이 담겨 있어 보는 맛도 쏠쏠하다. 어린이와 어른을 한정하지 않고 두루 읽을 수 있게 배려를

했다. 양 시인은 "곳곳에 푸르게 자라는 꽃나무들처럼 어린이, 어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시가 널리널리 꽃피길 바라는 것은 두 번째 동시집을 준비하면서 내내 행복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시인은 동시집 '우리 아빠는 대장', 시집 '흐르는 물'과 '배나무 가지에 달팽이 기어간다'가 있으며 동시 '버드나무 할아버지', '친구와 함께 걷는 길'이 동요로 작곡돼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0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남도문화재단, 3월 15일까지 접수

(재)남도문화재단(이사장 윤주봉)이 전국청년작가를 대상으로 '2020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시각예술 전 분야로 응모자격은 3년 이내 개인전 또는 단체전 1회 이상 개최자, 나이는 만28세-만45세 이하의 작가라면 공모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50호-100호 내의 작품과 입체 180cm×180cm×180cm 규격으로 타 공모전 미수상 창작품에 한하며, 오는 3월 15일까지 남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0만원(작품 매입비 포함)과 개인전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우수상(1명) 상금 1000만원, 선정작가상(5명) 상금 300만원 등이 주어진다. 또 오는 7월 1일-6일까지 서울 갤러리 인사아트에서 선정작가 그룹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작가는 오는 5월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하며 선정작가들의 작품전시와 최종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은 7월 2일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리브랜딩' '체크슈머' 대체어 '상표 새 단장' '꼼꼼 소비자'

'리브랜딩'과 '체크슈머'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상표 새 단장'과 '꼼꼼 소비자'가 선정됐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리브랜딩'의 대체어로 '상표 새 단장'을, '체크슈머'의 대체어로 '꼼꼼 소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리브랜딩'은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제품이나 상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소비자에

게 인식시키는 활동을 가리킨다. 또한 '체크슈머'는 상품의 성분, 원재료,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를 이른다.

한편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퍼지기 전에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량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062-526-6153, 010-6646-7282

####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영가제공  
☎061-285-0444

####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010-7186-6894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양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맥, 명당, 철학, 작명, 궁합, 택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됨!!  
☎061)333-4514, 010-3620-7268

####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062)252-1119, 010-9881-2922

####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향촌

서구 상무회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주복음, 김치찌개, 병면  
시골떡국 단체순임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표장기는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효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 참깨와들깨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멸치국수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 초대화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문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시부터  
☎ 010-6778-9330

####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